

영종 해안길 달린 '수천 건각'... 기록 이상의 즐거움 만끽

〈健脚〉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 성료

전국 러너 모여 하프·10·5km 경합 스포츠 넘어 지역 축제 자리매김

초여름 바닷바람을 가르며 전국 러너들이 인천 영종도에 모였다. 푸른 서해를 배경으로 펼쳐진 '2026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대회'가 16일 인천 중구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신문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러너와 가족, 러닝크루, 시민 등 수천 명이 참가해 해안 코스를 달리며 초여름 축제를 만끽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 모여 몸을 풀고 기념사진을 남기며 레이스를 준비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러닝 동호회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됐다.

대회는 하프코스(10km, 5km)로 나누어 진행됐다. 출발 총성과 함께 참가자들은 영종 해안길을 따라 힘찬 레이스를 시작했다. 서해 바다와 갯벌, 영종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선두권 러너들은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며 기록 경쟁을 펼쳤고, 일반 참가자들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해안 코스를

16일 제1회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총성과 함께 달려가고 있다.

즐기며 달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레이스 도중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함께 참가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코스를 만끽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동호회원들과 함께 10km 코스에 참가한 김나현(25·여) 씨는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꼭 한번 달려보고 싶었던 코스였다"

며 "오늘은 기록보다 해안길의 분위기를 도중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함께 참가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코스를 만끽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최민석(36·남) 씨는 "몇 달 전부터 꾸준히 훈련하며 대회를 준비했다"며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참가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운영 공간도 마련됐다. 운영본부와 기록 포토존, 메달 및 간식 배부처, 의료지원 부스 등이 운영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 안내와 안전 관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생수와 음료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체력 보충을 도왔다.

특히 반환점과 결승선 주변에는 시민

들과 가족들의 응원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지인들의 응원 소리에 힘을 얻어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이어갔다.

결승선 일대는 완주한 참가자들의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참가자들은 기록증을 확인하거나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완주

사진=지우현 기자

의 기쁨을 나눴다. 잔디광장 곳곳에서는 돛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남자 5km 부문 우승을 차지한 권준수(32·남) 씨는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나와 기쁘다"며 "바다를 보며 즐겁게 뛰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코스 분위기와 운영이 좋아 더욱 기억에 남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기록 경쟁을 넘어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러닝 문화가 일상 속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연령층 참가자들이 현장을 찾았고, 곳곳에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장면이 이어졌다.

신소형 경기신문 인천본사 사장은 "대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참가자들이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며 안전하게 레이스를 마무리해 뜻깊은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 씨사이드파크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서 함께 달린 오늘의 시간이 참가자 여러분에게 오래 기억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푸른 바다를 따라 달린 '2026 경기신문 씨사이드 마라톤대회'는 스포츠를 넘어 시민과 지역이 함께 호흡한 해안 축제로 마무리됐다. 기록 경쟁을 넘어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무리됐다.

▶▶ 관련기사 11면

박찬대·유정복, 후보 등록 첫 주말전... 조직 결집 속 표심 경쟁 본격화

FOCUS 6·3 격전지
박, '원팀 인천' 앞세워 민생 행복 유 "선거로 심판" 대어 공세 맞벌

6·3 인천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첫 주말부터 공개 일정을 대거 소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원팀 인천'을 앞세워 조직 결집에 나서며 동시에 주요 공약 알리기

에 집중했다. 지난 16일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선거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개소식에는 후보인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과 송영길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자리했다.

박 후보는 "인천 대전환" 구상을 제시하며 경선과 공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당 주요 인사들과 '원팀 인천' 기조와 당내 결속을 다졌다.

박 후보는 "지난해 잠정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며 성장률이 4년

만에 7.3%포인트나 빠진 인천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현안은 시장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 루원시티 상점가를 돌며 시민 접촉면 확대에도 나섰다. 상인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 민생과 경기 문제를 청취하는 등 '생활형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7일에는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정적 협

약식을 진행하며 노동계와 금융권 관계자를 만나 의견 교환에 힘을 쏟았다. 또 박 후보는 송영길 후보, 김남준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화 현안 대응에도 나섰다.

유 후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과 현안 공세를 동시에 밀어붙였다. 유 후보는 지난 16일 동구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일미제전' 행사 방문 뒤 부평구에서 열린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주최 '교회 사수 100만 성도 쫓겨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허식·임관만 등 인천시의원 후보 개소식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거론하며 사업 연속성과 추진 동력을 강조했다. 또 중·동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 발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대장동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거

를 통해 심판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17일에는 인천시육상연맹회장배 마라톤대회 참석에 이어 양항자 경기지사 후보와 국회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등 대어 공세에 집중했다.

유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식 개발을 적용하겠다는 망언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그 망언을 인천시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허민호 기자

5~8 6·3 지방선거·재보궐 경기인천 출마자 명단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의정선거
지방의회 의원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세종·제주 (4장)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일정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